

금강 유역사

정상만 (공주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부교수)

1. 금강유역의 개황

하천은 인류문명의 발상지이며 또한 지역과 문화권을 나누는 기능(분리기능)과 이를 연결하는 기능(통합기능)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금강은 충청도의 내륙 사이를 가로지르면서 고대문명의 한 자락으로 많은 풍요로운 문화가 생성되었으며, 서쪽으로는 중국, 남북으로는 영산강유역과 한강유역의 문화가 바닷길로 연결되는 교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마을 뒷산인 신무산의 자그마한 뜰봉샘에서 발원하여 또 다른 발원지인 덕유산과 마이산, 속리산 등지로부터 흘러든 물줄기와 만나면서 본류를 형성하고 충청권을 가로질러 군산, 장항이 위치하는 서해안까지 장장 1천리(400km)에 이르는 금강은 한강, 낙동강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세 번째로 큰 강으로 유로연장과 유역면적은 각각 404.4km, 9,885.8km²이다. 뜰봉샘에서 발원한 물줄기는 북으로 흘러 덕유산지역과 진안고원을 빠져나와 영동과 옥천사이의 충청북도 남서부에서 초강천, 송천천, 보천천과 합류한 뒤 북서쪽으로 전환하여 대청호로 유입된다.

대청호에서 빠져나온 금강은 신탄진 부근에서 갑천, 연기군 남면 부근에서 미호천과 합류하여 서남쪽으로 유로를 바꾸어 거의 직선상의 구조곡(構造谷)을 따라 흐르게 된다. 특히, 공주와 부여 사이의 약 30km구간은 유로가 거의 직선으로 형성되고 있다. 백제의 왕도가 위치했던 공주 부근에서 정안천과 유구천, 부여 부근에서 지천, 온산천, 금천과 합류한 후 강경

부근에서 석성천, 논산천, 강경천과 합류하여 전라북도의 도계를 따라 흐르다가 금강하구언을 통하여 서해로 유입한다.

그러기에 금강은 예부터 서해내륙을 잇는 수로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금강 중·하류부에서 군산까지의 구간은 옛날 꽤나 유명한 하항(河港)이었음은 물론 1914년 호남선의 개통과 육로교통의 발달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청주 및 대전인근의 하천까지 소금배가 오가며 서해의 풍성한 해산물을 실어나르는 유일한 수로였다.

금강의 평면형태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행하지만, 넓은 범람원이나 평면상을 자유 사행하는 구간은 적고 유로의 대부분은 산지 혹은 구릉지의 사이를 흐르고 있다. 특히 금강이 금산군 부리면과 충북의 영동과 옥천 사이에서 심한 감입사행(嵌入蛇行)의 형태를 이루는 것은 이곳이 하류부에 비하여 지반의 기복량이 큰 데다가 서로 다른 절리에 따른 암석의 차별침식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부여 이하의 금강·하류부에서는 후빙기 해수면 상승과 홍수때의 범람으로 인하여 넓은 충적평야를 이루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넓은 평야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금강유역은 중·하류부에 넓은 평야를 형성하여 전국에서 몇 번째 안가는 곡창지대를 이룸으로써 이 지역주민들의 풍요로운 삶의 터전이 되었으며 이같은 주운(舟運)의 발달과 곡창지대로서의 기능은 일찍이 내륙연안에 공주, 부여 등 고도(古都)를 놓고 강경과 같은 오래된 상업도시의 발달을 가져온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금강유역의 연강수량은 1,238mm로서 전국 평균과 비슷하며, 대부분의 비가 여름에 집중되어 강수량의 계절적 변동이 매우 크다. 우기인 6~9월의 4개월 동안에 연강수량의 60%정도가 내리며, 그 중 7월의 강수량은 연강수량의 약 30%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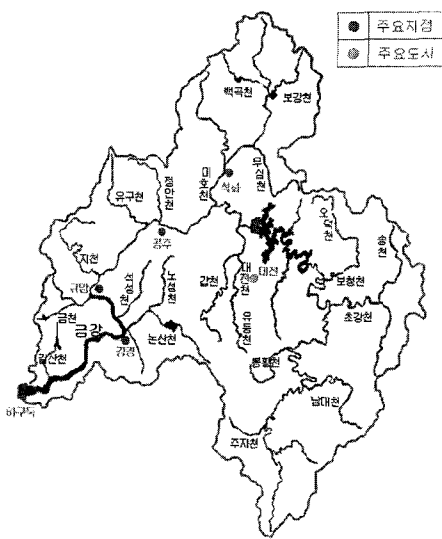


그림 1. 금강유역도

2. 금강의 유래와 전설

1) 금강의 발원지와 금강의 여러 명칭

예로부터 금강은 비단처럼 아름답다 하여 錦江(비단강)이라 하였으며, 그 물줄기를 따라 구간마다 다른 명칭으로 불리워 왔다. 금강의 발원지는 [동국여지승람]에는 속리산, 덕유산 중모현으로 되어 있고, [택리지]는 덕유산과 마이산, [성호사설]은 덕유산, [대동지지]에는 마이산 동봉이라고 적고 있으며, 현대 문헌으로 [새한글사전]은 전북 장수군, [한국지명총람]은 신무산 수분이 고개로 표기되어 있다.

현재 금강의 발원지는 전북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신무산(897m) 중턱의 '뜯봉샘'이다. 수분리 마을은 '물뿌랭이 마을'로도 불렸던 흔적이 있어 예로부터 이곳을 금강의 발원지로 여겼음을 알려준다.

장수읍에서 수분령 꼭대기로 오르다 보면 오른쪽으로 파란 삼각깃발이 보이는데, 이곳이 바로 금강과 섬진강의 분수령이다. 그 건너편 언덕에는 '수분송'이라 이름붙은 커다란 소나무가 한그루 서 있다. 이곳에서 뜯봉샘까지는 걸어서 40분 정도(1.8km) 올라가야 한다. 뜯봉샘이란 이름에는 옛날 이산에서 고을의 재앙을 막고 풍년을 기원하기 위하여 산에 군데 군데 땀을 뜨듯이 봉화를 올렸다는 데서 유래했다는 설(이 경우 '뜯봉샘'으로 표기)과, 태조 이성계가 백일기도를 하다 조선 건국의 계시를 받은 곳이라는 두 가지 전설이 깃들어 있다.

뜯봉샘을 출발한 금강 물줄기는 장수읍 용머리마을에서 섬진강의 발원지인 진안 팔공산(1151m) 물을 만난다. 팔공산을 사이에 두고 서쪽은 섬진강, 동쪽은 금강 수계가 되는 것이다.

[택리지]는 금강의 물근원이 되는 상류지역을 적등강(赤登江)이라 하고, 공주 부근을 웅진강, 그 아래를 백마강(白馬江), 강경강(江景江), 또 그 아래를 진강(鎭江)으로 기록하고 있다. 백마강은 부여읍 정동리 앞 범바위에서부터 부여읍 현북리 파진산 모퉁이까지의 약 16km 구간으로 소정방이 백마의 머리를 미끼로 하여 용을 낚았다고 하여 백마강이라고 개명하였다고 전해지나, [삼국사기]를 보면 백제 말기보다 1백 60여년 앞선 무녕왕시대의 기록에 이미 금강을 '백강'으로 표기했던 사실이 있다.

2) 금강유역의 전통적 지역 명칭과 유래

우리들이 흔히 쓰이는 말 중에서 우리는 관북, 영남, 삼남, 호남 등의 전통적 지명이 있다. 이들 말은 어디서 유래한 것인가? 그에 대해 여러 설이 있지만 가장 우리에게 와닿는 문헌을 찾아서 소개하고자 한다.

▶ '호남'은 어느 호수의 남쪽인가

호서(湖西)란 호수의 서쪽을 말하는 한자식, 특히 중국식 표현이다. '호'자라면 쉽게 흔히 전라도 땅덩어리를 연상한다. '호서'는 충청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즉, 충청북도와 충청남도를 합해 칭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호수는 어느 호수인가? 그것은 충북 북동쪽 제천에 있는 의림지를 말한다. 충청 남·북도 즉 충청도가 대체로 '의림지 서쪽'에 있어서 호서라고 불려 온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중국식 지명 표기이다. 호남, 산둥, 산서, 호북 등 중국의 지명 표현을 딴 것들이다.

그러면 호남은 어디인가? 의림지 남쪽인가? 아니다. 이 때의 '호'는 호강 즉 금강을 말한다. 그러므로 금강 남쪽이 되고 그것은 전라도이다. 전라남도과 전라북도를 합해서 부르는 전통적 명칭이다. 많은 사람들이 호남의 '호'자에 대해 혼란을 겪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호'가 가리키는 것이 애매한 것으로 되어 왔기 때문이다.

금강 명칭을 찾아보면 그것은 금강 외에 호강(湖江)으로도 쓰인 바 있다. 금강 하류가 폭이 넓어 호수로 연상해서였을 것이다. 그러니 호강 남쪽 즉 호남은 전라도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또 호중이란 무엇인가? 호수 가운데에 있다는 물이 호중(湖中)인데, 거긴 어디인가? 호수 가운데에는 섬이 있을 뿐 여기서 논하는 정도의 큰 지역은 있을 수 없다. 여기에서 호중이라고 하는 것은 충청도를 말하는 것이다.

기호(畿湖)란 무엇인가? '호'자는 여기서는 충청도를 가리킨다. 이 호자에서는 호서·호중을 연상하면 좋다. 그러면 '기'자가 문제인데 그것은 경기(京畿)의 '기'자를 가리킨다. 기는 고려시대 이래 수도와 그 주위 지역을 합해서 말해 온 글자이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수도권이 곧 기이다. 따라서 기호는 경기도와 충청도를 합해서 지칭하는 지명이 된다. 과거한때 지식인 그룹 중에 기호학파라는 것이 있었다.

▶ 공주(公州)와 곰나루(熊津)

금강유역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은 조선조 세조의 보은지역 친행과 인조의 공주지역 몽진과 관련된 지명유래전설이 일부 있는 것 외에는 주로 백제전설에 국한되어 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곰나루는 울

창한 소나무 숲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나루터로 1987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었으며 금강의 또 다른 이름인 웅진강을 탄생시킨 전설로도 유명하다. 곰과 인간의 애뜻한 사랑에 관한 곰나루 전설은 다음과 같다.

아득한 옛날 한 사냥꾼이 사냥을 하러 강을 건너다가 여자로 위장한 곰에게 붙들려서 본의 아니게 동굴에 갇혀 암곰과 살게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곰은 의심이 많아서 밖에 나갈 때에는 동굴의 입구를 바위로 막아 놓고 나가곤 했다.

그렇게 수년간을 살아오면서 아이까지 둘을 낳았는데 하루는 곰이 방심한 틈을 타서 사냥꾼이 동굴을 빠져나와 강을 건너오고 말았다. 이 광경을 바라본 곰은 다시 돌아오라고 애처롭게 호소하였지만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곰은 도망한 남편을 원망하면서 두 아이를 안고 강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고 한다. 그 뒤로는 죽은 곰의 원혼 탓인지는 몰라도 농사를 지으면, 계속 흉년이 들고 배를 타면 물결이 세차게 일어 배가 전복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되자 사람들이 죽은 곰의 원혼을 달래기 위한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고 나서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졌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 강을 곰강이라 하고 그 인근 마을을 곰주라고 했다. 이것이 나중에 금강, 공주로 변했다는 전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 고대 전설의 잘못된 해석

금강의 가장 큰 특징은 전북에서 발원하여 북류(北流)하여 충남·북을 거친 다음 다시 전북과 충남을 사이에 두고 서해로 흘러든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된 금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현재까지도 우리 사회와 문화에 있어 지역성으로 깊게 자리잡고 있다.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은 즉위 한 26년이 되는 해이자 후삼국을 통일한 7년이 되는 해에 세상을 떠났다. 그때(943년) 왕건은 훈요 10조를 작성하였는데 그의 후사들이 경계해야 할 10조목이 그 내용을 이루고 있는데, 이 10조항에는 왕건의 불교 및 풍수지리설에 대한 사상과 왕자로서의 태도, 왕위계승 원칙 등에 대한 견해가 실려 있다.

그 가운데 1천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주목을 받는 것은 바로 여덟째 조항인 「차령산맥 이남과 금강 바깥쪽은 산형과 지세가 모두 거꾸로 뻗었으니 인심도 또한 그러하다. 저 아래 고을의 사람이 조정에 참여하여 왕이나 왕실의 인척과 혼인하여 나라의 정권을 잡게 되면, 혹은 나라에 변란을 일으키거나 혹은 통합당한 원한을 품고 왕이 거동하는 길을 범해서 난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것이다.

이 자료는 차령 이남과 금강 바깥 쪽 곧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이 풍수상 배반의 성격을 지닌 형상을 하고 있으니 인재등용에 주의하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오늘날까지 한국 사회의 병폐 중의 하나이자 망국병으로 거론되는 지역 감정의 원인제공으로 흔히 얘기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지역감정이 오랜 역사를 지닌 것 같이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역사인식이므로 금강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그 기록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제이다.

3. 금강유역의 생태

1) 철새도래지

금강유역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조류가 9종이 관찰되었는데, 이들은 큰고니, 고니, 붉은매새매, 새매, 잿빛개구리매, 황조롱이, 소쩍새, 솔부엉이, 쇠부엉이 등이다. 이중 겨울철새가 4종, 여름철새가 3종, 텃새가 2종이다.

서산시 부석면 천수만 AB지구 일대와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 경계에 자리한 금강하구둑은 국내 대표적인 철새도래지다. 동남아 최대의 철새도래지인 천수만 일대에서는 AB지구 방조제를 중심으로 철새가 분포하고 있으며, 금강하구둑에서는 검은머리물떼새 등 해수 철새, 상류쪽엔 오리류 등 담수 철새 등 20여종의 철새 25만~30만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주로 볼 수 있는 새는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큰기러기, 고방오리 등 5종이고, 노랑부리저어새와 백로, 왜가리 등 많은 희귀새도 관찰되며 많을 때는 50만~60만마리가 모여든다.



그림 2. 서산 AB지구 철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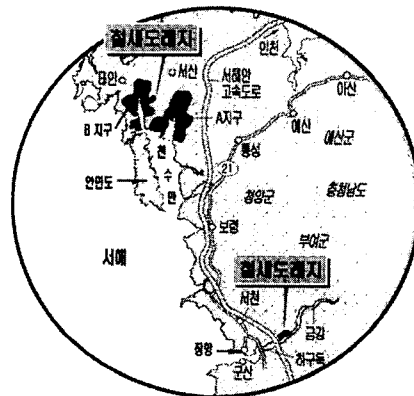


그림 3. 금강유역 철새도래지 위치도

2) 식생 및 수생식물 현황

금강유역의 식생은 덕유산 정상부에서는 한대림 또는 아고산삼림이며 이외의 지역에서는 온대림이다. 온대림에서는 소나무단순림, 참나무류를 위주로 하는 활엽수림, 활엽수와 소나무와의 혼합림이 널리 나타난다. 우리나라 온대림은 다시 온대남부, 온대중부, 온대북부로 세분되는데, 금강유역은 온대남부와 온대중부에 속한다. 즉, 금강유역의 북부는 온대중부에 속하여 상대적으로 북쪽 기원의 식물이 더 많으며, 그 남부는 온대남부에 속하여 남쪽 기원의 식물이 더 많다. 대청댐 이남지역에서 비교적 식생이 풍부한 계룡산 지역에서 온대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면 교목층에 소나무,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등이 혼생한다. 수직적으로 보면 덕유산(1,614m)에서 하구에 이르기까지 고도차가 매우 크므로 식생분포에서도 온대림과 한대림이 나타날 수 있다.

덕유산의 고도 약 1,300m 이상에서는 아고산대의 식생이 나타나는데, 이곳에는 가문비나무, 분비나무, 잎갈나무, 주목, 구상나무, 박달나무, 신갈나무 등이 나타난다. 한대림의 아래에는 활엽수림이 분포하는데, 덕유산에 일부 원시림이 존재하고 있다. 활엽수림을 구성하는 수종으로는 산갈나무, 떡갈나무, 상수리나무 등의 참나무류와 박달나무, 자작나무, 단풍나무 등이며, 관목층에는 진달래, 철쭉, 싸리나무 등이 나타난다.

활엽수림의 아래에는 소나무와 참나무류를 위주로 하는 활엽수와 혼합림, 또는 소나무가 우점종인 침엽수림이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하천의 제방에는 억새, 새, 수크령, 강아지풀, 개밀과 같은 벼과 식물과 금동방사니, 동방사니, 길뚝사초 등의 사초과 식물이 주를 이룬다.

4. 금강유역의 문화

1) 선사시대

충남 공주군 장기면 장암리 석장부락의 금강 복안에 위치한 공주 석장리유적(사적 제 234호)은 1964

년~1974년까지 10차례 발굴되었고, 1990년과 1992년에 발굴되어 지금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발굴을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구석기연구사에 있어서 학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유적은 크게 2개 지구로 나누는데 I 지구는 II 지구보다 늦은 1967년부터 발굴되어, 후기 구석기시대의 집터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II 지구는 석장리 맨 처음 발굴한 1964년부터 조사되어, 27개의 지층에서 전기, 중기, 후기 구석기의 12개 구석기문화층이 층위를 이루고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석장리 유적은 금강의 하안단구에 발달한 문화층으로서 구석기인들이 사용하던 외날찍개, 자르개, 굽개, 주먹대패 등 각종 원시도구들이 출토된 남한 최초의 구석기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2) 청동기시대

1976년 발굴된 부여 송국리 유적이 가장 대표적인 유적으로 이곳에서는 원형 및 방형의 주거지와 민무늬토기 홍도(紅陶) 등이 발견되었으며 특히 탄화미가 약 4kg가량 출토돼 우리나라 벼농사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를 제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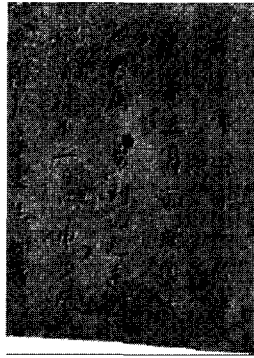
3) 삼국시대

공주 송산리 고분군에 위치한 무령왕릉(71년 발굴)은 백제고분으로는 유일하게 피장자를 알 수 있는 매지권(買地券)이 출토돼 백제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남겼다. 사비시대의 백제유적으로는 부여 능산리 고분군이 대표적 유적으로 꼽힌다. 이 유적에는 총 7기의 고분이 있는데 이중 동하총(東下塚)이라 불리는 무덤에는 4면의 벽에 사신(四神)이, 천장에는 연화문(蓮花紋)과 비운문(飛雲紋)이 남아있어 당시의 예술상을 엿볼 수 있다.

백제문화의 중심이었던 공주와 부여는 서기 660년 나당연합군에 의해 백제가 멸망하면서 신라문화권으로 융화되었으나, 금강이 새로운 문화형성에 있어서 백제의 혼과 정신을 이어주는 문화교류의 터전이 되었다.



무녕왕의 금판



무녕왕의 지석



청동제신발과 왕비의 두침



청동제 거울

그림 4. 무녕왕능에서 출토된 백제시대 유물들

4) 고려 및 조선시대

공주는 조선시대 500년 동안 충청감영이 있던 곳으로 충청도의 정치 행정 문화 전략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충청도는 고려말 공민왕 5년(1356) 양광도를 개칭한 것으로, 그후 여러 차례에 걸쳐 행정구역의 조정이 이루어져 조선 태종조에 대체로 그 윤곽을 정립하게 된다. 더욱 임진왜란 직후인 선조 31년(1598년)에는 충청감영이 충주로부터 공주로 이전됨으로써 공주는 충청도의 수부로서의 정치 행정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조선시대 공주의 역사유적은 여러 가지 기록과 현장에 남아있는 사실로도 알 수 있지만, 특히 김정호의 [대동여지도]가 나온 무렵인 조선후기에 출간된 공주의 읍지인 [공산지(公山誌)]는 공주지도가 포함되어 있어 당시의 공주의 역사적 유적의 위치를 고증



그림 5. 공산지

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

5) 현대

공주는 6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백제의 왕도가 있었던 곳이지만 무령왕릉과 공산성, 그리고 곰나루의 전설을 간직하여 흘러가는 금강을 따라 백제의 흔들이 살아 있는 곳이다.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1500년전의 찬란했던 백제문화유산을 재현하기 위하여 백제큰길 조성, 금강벚길 조성, 공주 문화관광단지 조성, 부여에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신라문화권 개발과는 달리 찬란한 백제의 역사와 문화가 재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한 생활상의 표현을 중심 기조로 설정하였으며, 첨단 유객시설의 도입과 역사를 주제로 드라마틱한 프로그램 개발과 기존 지형과 수림(樹林), 인근마을을 최대한 보존시키는 환경친화적인 설계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금강유역을 중심으로 한강유역에서 영산강유역에 걸친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대하여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백제문화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옛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재현하고자 매년 가을에 공주와 부여에서 번갈아 백제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5. 결론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금강은 선사시대부터 유구한 문화가 이어지고 있으며, 백제시대 이후 충청 지역의 문화 중심부로서 충청도 내륙의 물자와 인구, 문화가 연결되는 통로였고 서해안을 호남과 경기지역의 문화와도 활발한 교류를 벌이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신라문화에 비해 백제문화가 다소 과소평가 해왔던 것이 현실이다. 금강유역의 역사 변천과 함께한 백제문화는 북쪽으로는 한강과 남쪽

으로는 영산강유역과 서해를 통하여 한국 문화의 주요 기저를 이루는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해 왔던 것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산업화로 격변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금강의 수계변화와 수자원 관리, 생태계 변화, 산업구조와 사회변화 등 금강을 중심으로 한 변화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개발과 보전이라는 양비론적인 관점에서 오는 혼돈속에서도 역사를 신고 흐르는 금강의 본질과 지속성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택규, 금강유역사연구, 한국향토사연구 전국협의회, 1998.12
- 신정일, 우리 강 따라 걷기(금강), 가람기획, 2001
- 대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금강유역의 전통문화, 대전대학교 출판부, 1996
- 한국이동통신 충남지사, 금강, 그 영원한 숨결, 1995
- 나도승, 공주 금강권의 역사지리, 공주교육대학 정년퇴임 기념논문집, 1994
- 충청남도, 금강지 상·하, 1993
- 금강환경관리청 <http://kum.me.go.kr>
- 금강홍수통제소 <http://www.hrfco.go.kr>
- 원광대학교 사학과 <http://mahan.wonkwang.ac.kr>
- 포항공과대학교 생물학정보센터 <http://bric.postech.ac.kr>
- 21세기 박물관 <http://www.museum21.org>
- 월간조선 <http://monthly.chosun.com>
- 충청일보 <http://www.ccnews.co.kr>
- 두배로 <http://www.doobaero.com>
- 공명철의 열린국어강의노트
[http://ipcp.edunet4u.net/~koreannote/Virtual Korea](http://ipcp.edunet4u.net/~koreannote/Virtual%20Korea)
<http://mail.hanminjok.net:8080/vkoreamain/main.htm>
- 길벗 <http://www.gilbut.net>
- 내일신문 <http://www.naeil.com>
- 자유로 찾는 여행
<http://yain.hihome.com/good2/earthname.htm>